



세계 4대 강국인 한국 체육

“

이번 국정감사에서 양측가들이 아쉽게 생각하는 점은 사료곡물 수입 쿼터제와 같이 그간 양측가 단체가 수십차례 건의해도 뚜렷한 이유없이 묵살되어 양측가들이 큰 피해를 입은 문제들이 그냥 넘어갔다는 점이다.

”



노 영 한
(대한양돈협회 전무)

서울올림픽은 한국이 체육에 있어서 세계 4강에 진입하는 체육 선진국으로 발돋움 하게 하였다. 아세아권에서는 물론 전세계 자유진영에서는 미국 다음 가는 은메달국이 되었다. 격투기에서 쏟아진 금메달이 국민들을 즐겁게 하여 주었고, 앞으로 태권도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면 격투기에서는 금메달국이 될 것이 거의 틀림없다.

체육뿐만 아니고 세계적인 금메달은 올림픽이 끝나고 곧바로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쏟아져 나왔다. 소위 5공비리라고 하는 것들로 각 부처 어디에서고 금메달의 홍수를 이루지 않은 곳이 없다.

이번 감사는 아무 곳이나 눈감고 칼만 대면 고름이 줄 줄 흘러 나오기 때문에 사전 정보가 없이도 손가는 대로 칼만 대면 되었다는 감사 뒷얘기까지 있다.

이번 감사에서 양측가들이 아쉬운 점은 그간 양측가 단체들이 건의한, 그것도 수십차례 건의해도 뚜렷한 이유없이 묵살되어 양측가들이 크게 피해를 입은 문제들이 그대로 넘어간 점이다.

예를 들면, 사료곡물에 대한 쿼터제 실시로 그간 양측농민들의 손실이 컸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답변이 이번에도 납득하기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 황새의 높은 뜻을 축새가 어찌 헤아리겠느냐고 한다면 할말이 없지만, 이 문제는 직접 이해 당사자인 양측가들과 정

“

이번 국정감사가 그동안 우리가 잊었던 일들을 일깨워 주고 잘못되어 가는 정책 방향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농축산업의 위치가 재정립되지 않으면 체육 4강의 유지도 어렵지만 그 의미도 퇴색될 수 밖에 없다.

”

부와의 대화가 앞으로 있어야 하리라고 생각 된다.

앞으로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심의 과정에서 농축산물의 수입개방 정책에 대해서도 다루어 지겠지만 입법활동으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 많이 있다.

이번 한미 통상회담에서도 미국측과 합의되었고 부총리도 몇차례 밝힌 농산물 수입예시제를 금년내에 마련하여 발표한다고 하는 문제도 농축산업의 현실이 무시된채 이루어지지 않도록 농림수산부와 상임위의 활동에 기대할 수 밖에 없다.

농축산물의 수입개방 순서가 대개는 국제경쟁력이 없는 품목은 조기에 개방하고 경쟁력이 있는 것은 경쟁력이 있으니까 개방하는 식으로 추진하다 보면 결과는 농축산업의 포기로 나타날 수 밖에 없게 된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국민학생중에 도시락을 싸 올 수 없는 가난한 어린이가 1,354개 학교에서 8,155명이나 되고 이 중에 군 단위 이하의 농촌 학교에서 3,244명이나 된다는 현실에서도 농축산물의 조기 수입 개방은 더욱 농촌문제를 어렵게 만들 것이다. 농촌문제 뿐만 아니라 농촌을 떠나 도시 빈민이 되면 도시 문제로 까지 연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전 모 재벌회사가 도시락을 사진찍어 5단 전면 광고를 내면서, 옛날 보리고개라는 것이 있었을 때 담임 선생님이 도시락을 두개 싸 와서 오늘은 배가 아프다면서 사랑하는 어린이제자들에게 주시던 그 사랑을 광고하면서, 이제는 이런 일이 이 땅에는 없는 것처럼 흘러간

옛추억이나 된 것처럼 홍보를 했는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8천명이 넘는 어린이가 아직도 점심을 굶고 있으며, 이번 조사에서 열등감이나 자존심 때문에 응답하지 않은 어린이까지 합하면 더욱 많을 것이란 단서까지 붙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농축산물 수입개방을 어쩔 수 없다고 한다면 점심시간이면 피해 다녀야 하는 어린이가 수만 증가시키는 결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소와 쇠고기를 땅에 묻어야 하고 청와대에서 받은 현금이 200억원씩 행방이 묘연 해도 15억원이면 해결된다는 점심을 거르는 학생들의 문제는 잊혀져 가고 있다. 이들이 점심만 굶는지 아침이나 저녁도 제대로 못 먹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이러한 슬픈 일들이 빨리 잊혀지고 마치 이런 일들은 먼 옛날에나 있었던 일로 착각하게 만드는 대 재벌의 신문광고도 이들 학생과 선생님들에겐 괴로움만 더해 갈 뿐이다.

오히려 신문광고보다는 광고료를 학교 급식비에 보내든가, 아니면 농축산물을 수입 판매하는 재벌들이 새 세대 아동급식재단 같은 것이라도 만들면 약간은 피해 본 농민들에게 사죄의 뜻이 될 것 같다.

이번 국정감사가 우리가 잊었던 일들을 일깨워 주고 잘못되어 가는 정책 방향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되도록 마무리가 잘 되어 가기를 바라면서, 농축산업의 위치가 재정립되지 않으면 체육 4강의 유지도 어렵지만 그 의미도 퇴색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